

이하늬, 미스 유니버스 4위



1위는 미스 일본 모리 리오
미스코리아 이하늬(24·사진)가 29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07년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 4위 입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저녁 멕시코시티의 아우 디토리오 나시오날 대극장에서 진행된 2007년 미스 유니버스 결선대회에서 이하늬는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로 심사위원들과 관중들의 찬사를 받았다. 세계 77개국의 참가자들 가운데 15명을 선발하는 1차 판문을 무난히 통과한 이하늬는 이어 10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 베네수엘라, 브라질, 미국, 일본 대표와 함께 톱 5에 들면서 미스 유니버스 왕관을 바로 눈앞에 두었으나 아쉽게 4위에 그치고 말았다. 25만 달러 상당의 미스 유니버스 왕관을 차지한 일본 대표 모리 리오(20)는 고교시절부터 캐나다에 유학하면서 발레스쿨에서 댄스를 배운 후 귀국해 모친이 운영하는 댄스교실에서 재즈댄스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돌아온 '칸의 여왕'

전도연 어제 입국 "너무 영광스러워요"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배우 전도연과 이창동 감독, 영화배우 송강호, 영화제작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프랑스 파리발 대한항공 KE902편을 통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빨간색과 검은색 체크 남방에 청바지 차림으로 귀국한 전도연은 수상 소감에 대해 "여우주연상 수상자로 호명되는 순간 너무 놀랐다"며 "상을 받았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전도연과 이창동 감독 등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소감을 밝히겠다고 하며 이후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광주 학생들 '유전자 치료' 높은 관심 인상적"

전남대 강연한 '유전자 치료' 세계 권위 윤경근 박사

흰 쥐를 검은 쥐로 바꾸기 성공...첨단 의학 개척

"유전자 치료(gene therapy)"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남대 의대 학생들이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보니 실감 하겠더군요."(웃음)
미국서 활동중인 유전자 치료의 권위자 윤경근 박사(59·전 미국 토마스 제퍼슨대 의대 교수)가 강연차 광주를 찾았다.
지난 25일 남편인 브루스 존슨(Bruce Johnson·전 '듀폰'사 연구원)과 함께 광주에 온 윤 박사는 전남대 의대 생화학교실에서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치료의 원리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광주방문은 사촌지간인 전남대 윤에근 교수(한국화학)의 권유로 이뤄진 것으로, 이날

전남대 강연은 학생과 교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유전자를 투입, 유전자를 정상으로 되돌려 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천200여개의 임상실험이 진행중이다.
윤 박사는 지난 1998년 토마스 제퍼슨대 피부생물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던 당시 유전자 변이로 흰색이 된 쥐를 다시 검은 쥐로 바꾸는 유전자 실험결과를 발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1999년과 2000년 잇따라 생물공학전문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 Technology)'에 게재돼 전세계 매스컴을 타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아주대의 초청으로 37년만에 한국에 온 그는 한달동안 강연회와 세미나를 통해 유전자 치료에 대한 자신의 다양한 연구경험을 들려왔다.
"미국에 유학온 한국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 영향 때문인지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미래 유학을 계획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려서부터 다양한 사고를 통해 진취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콜로라도 보울더시에 거주하고 있는 윤 박사는 만약 광주와 '인연'을 맺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학에서)블러주면 방문연구원으로 일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태생인 윤 박사는 지난 1970년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 조교수, 세계적인 제약회사 '머크(Merck)'의 연구원을 거쳐 지난해 필라델피아 제퍼슨 메디컬 스쿨에서 정년퇴임했다.



윤 박사는 오는 6월4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총기참사는 개인문제...한국 문화 배우러 왔어요"

하계 국제프로그램 참가 방한한 버지니아 공대생들

"총기난사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일 뿐 그 사건으로 한국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이미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미국 버지니아공대 소속 학생 10여명과 교수 2명은 29일 오전 자매학교인 건국대에 서 열린 방한 단체 인터뷰에서 이런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에 참석한 한 남학생은 "사건을 일으킨 학생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었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 수도, 어느 연령대일 수도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한국인이었을까"이라며 "이 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생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계인 리즈 진(20)씨도 "한국인 피가 섞여있는 내가 이 사건 이후에 차별을 받거나 학교에서 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 같다"며 "이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 한국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벤자민 세린(22)씨도 "이번에 온 이유는 나의 공부를 위해서이며 그 사건이 나의 선택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한국을 배우고 많은 교류를 통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세린씨처럼 이들은 지난해 9~10월께 자발적으로 국제하게 프로그램을 참가하겠다고 지원했으며 기회는 있었음에도 총기 사건 이후 단 1명도 참가를 포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인솔자인 데이 캐럴리(47)교수는 전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 전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과 경제단체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힙합듀오 원투 송호범 내달 30일 결혼

4살 연하 백승혜씨와



힙합 듀오 원투의 송호범(30·사진 왼쪽)이 4살 연하의 백승혜 씨와 결혼한다.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송호범이 6월30일 오후 5시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백승혜 씨와 웨딩 마치를 올린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다.
송호범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송구스럽지만 내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그녀에게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홀로 계시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효도도 하고 싶었다"며 "원투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결혼은 박수홍이 대표로 있는 라벨웨딩에서 맡는다. 원투는 8월 3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목포시 의사회, 지역인재 양성 장학금 전달



목포시 의사회는 지난 28일 상그리아호텔에서 제2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의사회는 이날 목포시에 15개 고교의 성적우수 학생 3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천500만원을 전달했다.
목포시의사회 조성구 회장은 "지역사회의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사회가 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이성진기자 sslse@



한국계 혼혈스타 우르슬라 '환상모매' 공개

한국계 혼혈스타 우르슬라 메이스(본명 이미영·28)가 모발인 화보를 통해 색다른 모매를 드러내고 국내 연예활동을 시작한다.
메이스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광에서 극비리에 스타화보 촬영을 마쳤다. '비너스'를 주제로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진행된 이번 화보 촬영에서 메이스는 200여벌의 명품 의상을 입고 촬영했다.
소속사는 "우르슬라 메이스의 완벽한 몸매를 유감없이 감상할 수 있다"면서 "노출 수위는 다소 과격적"이라고 전했다.
메이스의 스타화보집은 30일부터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F 모바일, LG텔레콤 등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다 내달 초 입국할 예정이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학측

- ▲이재화(동일상사 대표)씨 장남 기행군 한덕식씨 차녀 지연양=6월 2일(토) 오후 3시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
- ▲장갑례씨 차남 임태호(전지합 동법률사무소 변호사)군 류정인씨 차녀 윤희(골든투 교육팀장)양=6월 2일(토) 낮 12시50분 갤러리아웨딩홀 2층.
- ▲김준원(전 광주경상대학교장)씨 장남 도균(광택 우리들 재활의학과 의원 원장)군 육은성(광주통일과 관광·전 전남도립 남도대학교장)씨 차녀 철승(푸르덴셜생명)양=6월 3일(일) 낮 12시30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동창·동문회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접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유료(1588-9191)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

총진회

- ▲송원고 총동문회 월례회=6월5일(화) 오후 7시 김선장회센터. 011-212-2900
-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회장 이태교) 선조 유적지 방문=6월2일(토) 오전 8시30분 상록회관 출발.
- ▲재광 나주향우회 제 16차 정기총회=6월2일(토) 오후 4시 오페라 하우스. 227-8880
- ▲광주향교 사서삼경 수강생 모집=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3시, 5시. 주역·논어·맹

모집

- 자·소화. 문의 672-7008
- ▲아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모집=고졸 이상 학습지도 가능자. 문의 262-2780, 3
-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가사 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희망하는 주부 및 고령자. 문의 511-0011~3
- ▲Ms magic 회원 모집=각종 이벤트·축제·레크레이션 공연 등 마술회원 모집. 227-1991
- ▲요리학원 수강생 모집=조리사 자격증반·생활요리반·푸드 코디네이터반·외식 창업요리반 등 수강생 모집. 아빠 주말반 운영. 문의 385-0723
-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무료 노 래교실 수강생 모집=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계림동 마사회 광주지점 2층. 문의 410-5000
- ▲광주인연맞기학교 차량지원활동가 모집=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차량 지원 활동가 모집. 문의 010-2323-2688
- ▲제3의학연구소 무료 강좌=심신 건강·습관 교정·활기찬 삶을 원
- 하는 사람. 문의 227-0464
- ▲광주유교대학 신입생 모집=매주 월·수 수업. 문의 672-6501
- ▲민요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매일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좌 수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남골묘특별분양
문의 (062) 521-1100